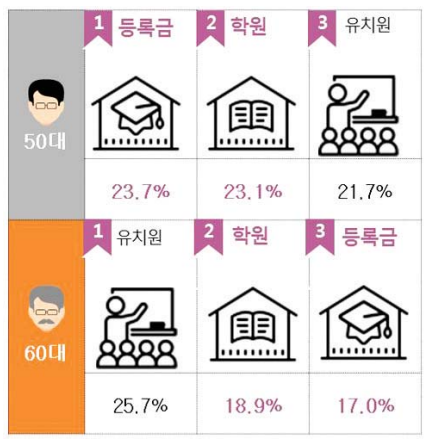
50대엔 자녀 등록금, 60대엔 손녀 유치원비

5060, 성인자녀 부양에 허덕…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한화생명
'빅데이터로 본 5060세대 보고서'

은퇴시점에 자녀 지출부담 여전
손자녀 양육 관련 지출도 늘어나

〈자녀 관련 카드지출 중 상위 항목〉



*A대형 카드사 매출 데이터(2017.8~2018.7)

청년 실업, 늦은 결혼, 주거비 상승,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5060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부양까지 하고 있어 금전적인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이 7일 발표한 '빅데이터로 바라본 50·60세대' 보고서에 따르면 5060세대는 간병, 요양원과 같은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과 자녀 결혼과 학비, 손자녀 육아까지 위·아래로 감당해야 할 몫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위한 걱정까지 할 겨를이 없었다.

이번 자료는 한화생명이 자사 보유 고객 정보,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 약 2000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5060세대의 라이프 트렌드, 금융 스타일 등을 분석한 것이다.

5060세대는 은퇴시점이 다가오는 나이임에도 자녀와 관련된 지출 부담이 여전했다. 심지어 60대는 독립한 자녀의 손자녀 양육 부담 관련 지출도 증가하며 경제적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이 한 대형 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녀 관련 카드 지출의 경우 50대는 등록금, 학원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반면 60대는 유치원비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공소민 한화생명 빅데이터 팀장은 "50대에 자녀 졸업 등으로 등록금, 학원 비용이 감소하면 60대에 또다시 손자녀의 유치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걱정하는 5060세대는 은퇴 후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하려는 경향이 증가했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7년에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한 50대는 73%였지만 2017년에는 80%로 증가했다. 60대도 53%에서 66%로 늘어났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의탁하려고'라고 답변한 비율도 2007년 19%에서 2017년 9%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5060세대는 부채 부담도 컸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연령대별 평균 부채를 조사한 결과 50대가 846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8173만원), 60대(7353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5년 전(2012년) 대비 부채 증가율은 60대가 54.1%로, 모든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60세대에 또 다른 부담은 '의료비'다. 한화생명의 인당 평균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3년 77만7000원에서 2018년 94만5000원으로 21.6%가 증가했다. 특히 입원은 5년 전 130만원 대비 177만원으로 36.2% 증가했고 통원은 27만4000원 대비 46.9% 증가한 4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의 5060세대 생활비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2012년 대비 2017년에는 의료비가 13.4% 증가하며 통신비(8.8%), 경조비(6.9%), 식비(5.2%), 주거비(2.7%) 등에 비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도 10년 전과 달라졌다.

통계청에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5060세대와 2030세대 모두 증가했다. 반대로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감소했다.

공소민 팀장은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생각이 커진 반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2019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강연하고 있다. /KB금융

윤종규 KB회장, 하반기 경영진 워크숍

"워크다이어트로 주40시간 정착해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5일 KB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 열린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하반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워크 스마트(work smart)'를 통한 주 52시간, 나아가 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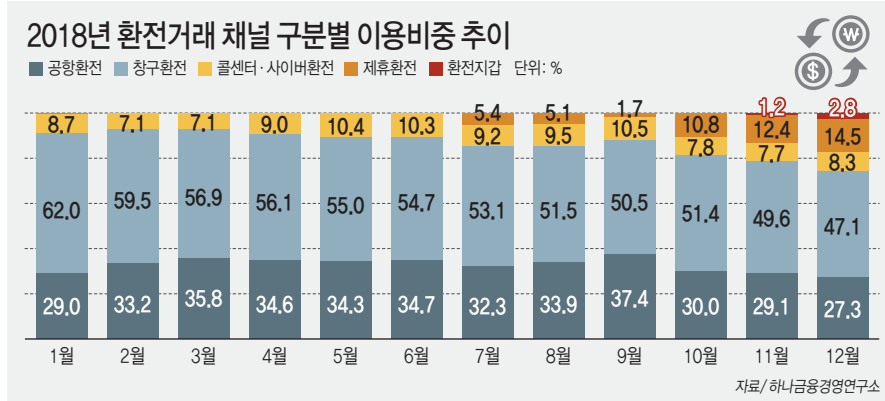
그는 또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채널 경쟁력을 강조하고 고객 관점에서 KB만의 차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7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윤 회장 등 임원진 200여명은 이번 워크숍에서 내부 혁신사례와 하반기 핵심 이슈를 공유하고, 고유의 일하는 방식인 'KB다움'의 실천을 다짐했다.

또 디지털,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등 11개 분야에 관해 분임별 전략을 토의하고 현장에서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해 하반기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비대면 환전 급증… 환율우대 등 차별화 필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영업점 환전고객 비중 62%→47%
비대면 채널은 9%→25%로 늘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환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서비스 이용 채널이 영업점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은행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EB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7일 최근 1년간 영업점 환전고객 비중이 62%에서 47%로 감소한 반면, 모바일 앱이나 토스·환전지갑 등과 같은 비대면 채널 환전 비중은 9%에서 25%로 증가해 소비자의 이용 채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제휴 환전 거래의 약 98%를 차지하는 토스 환전거래가 지난해 6월 제휴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기준 14.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11월 출시한 비대면 환전 서비스인 환전지갑 이용도 꾸준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한편 공항 환전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최저인 27%를 나타내며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도 이같은 추세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우선 KEB하나은행은 환전지갑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고객에게 주요통화에 한해 최대 90%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하나멤버스 앱에서 환전지갑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손님에게는 하나머니 특별 적립혜택을 통해 100% 환율우대효과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위비뱅크'를 이용해 환전하는 고객에게 환전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90%의 환율우대를 적용하며, 온라인 면세점 적립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앱 '리브(Liiv)'에서 환전하는 고객에게 최대 90%의 환율우대를 해준다. 또 신한은행은 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서 모바일 앱 '쏠(SOL)'의 '쏠편한 환전'을 사용하면 주요 통화에 대해 최대 9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해외 송금 및 환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소비자의 이용 행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금감원, 軍 재정장교 '금융연수' 실시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육·해·공군 재정장교 57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군 재정장교 대상 금융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군에서 금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장교 등의 금융이해도와 강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장교 대상 금융연수를 201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연수는 군 장병 금융이해력 향상과 강의능력 교수법 등 재정장교가 강사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군 장병의 생활 특성과 교육수요 등을 반영해 저축, 투자, 보험, 재무설계, 연금, 금융사기 대응, 강의능력 향상 등 연수과목을 신설했다. 재정장교가 군 장병들에게 서민금융지원제도와 채무조정 등을 설명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군 내 금융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 수료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 할 예정이다.

/김희주 기자

최종구 "연내 정책금융 17조 투입"

금융위,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금융위원회가 투자와 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에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앞당기고,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분야에도 5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On-lending)을 신설해 1조원을 지원한다.

산은은 미세먼지와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기업은행과 함께 1조7000억원도 지원한다. 한도는 시설자금이 1000억원, 운영자금은 200억원이다. 금리는 1.0%포인트 감면해 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청정환경 설비를 개발·생산·도입한 중소기업에 6000억원을 공급한다.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낮춘다.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공급(3조1000억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100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1조2000억원)도 확대한다.

/연합뉴스